이정선 재선 맞서 3명 도전장…각축전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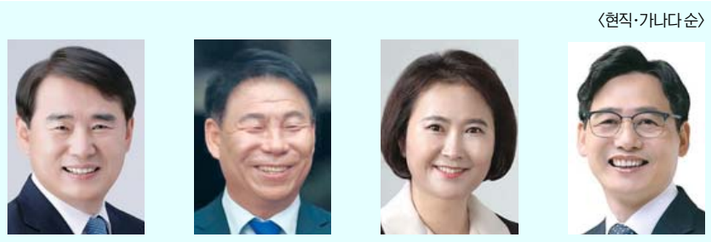
광주시교육감

꿈드리미·직업고 경쟁력 확보 성과

동창생 채용 비위 사법리스크 악재

김용태·오경미·정성홍 출마 공식화

反이정선 연대…'단일화' 최대 변수



6·3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일찌감치 달아오른 광주시교육감 선거는 현직 교육감과 출마 예정자들이 각축전 양상을 보이면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재선에 도전하는 이정선 현 교육감과 이에 맞선 김용태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장, 오경미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 정성홍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장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정선 교육감은 자신의 고교 동창을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2025년 마지막 날인 12월31일 불구속 기소돼 사법리스크가 재선가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반(反) 이정선 연대인 김용태 전 지부장과 오경미 전 교육국장, 정성홍 전 지부장의 단일화 여부가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이정선 교육감은 직선 4기 임기동안 다양한 성과를 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10년 만에 수능 만점자를 배출하며 '실력 광주'를 회복하는 신호탄이 됐다는 평가다. 또 기초학력 부진 학생 수 1% 미만 감소, 신입생 미달로 위기를 겪던 직업계고는 광주형 마이스터고 도입 등을 통해 입학 지원율이 1.27대1을 기록하며 반등했다.

이 밖에 학생에게 교육 경비를 지원하는 '꿈드리미' 사업과 무상 교통비 지원, 미래형 교실 인프라 확충, 진로진학지도사례 대상, 2년 연속 시·도교육청 최우수 평가도 눈에 띈다.

이 교육감은 광주교대 교수와 참여정부 교육혁신위원회 미래교육문화전문위원회 자문위원, 한국교육학회 부회장, 제5대 광주교대 총장 등을 지냈다.

김용태 전 지부장은 청렴과 신뢰의 회복, 교사의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 학생의 평등한 배움과 당당한 미래를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또 ▲광주교육청 신뢰 회복 ▲Human & Smart AI 학교 혁명 ▲시민이 교장인 학교 ▲지속 가능한 광주교육을 4대 목표로 광주교육의 구조적 전환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내놓았다.

김 전 지부장은 전남공고 교사, 광주공고 교장 등으로 30년간 근무했으며 전교조 광주지부장과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시민학교장 등을 지냈다.

광주 첫 여성 교육감을 노리는 오 전 국장은 위기에 빠진 광주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의 본질인 '인성'과 '기본'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오 전 국장은 ▲밀실 인사 원천 차단 ▲독서·토론·예체능 교육 강화로 공감하고 질문하는 인간 중심 AI 교육 ▲광주 에너지·AI 융합 이공계 슈퍼 인재 양성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을 세계가 배우러 오는 교육 실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오 전 국장은 두암중·대촌중 교장, 광주시교육청 장학관, 창의융합교육원장 등을 지냈다.

정성홍 전 지부장은 출마 예정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하고 지지세를 넓히고 있다.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패배한 정 전 지부장은 절치부심 재도전에 나서면서 "모두가 빛나는 무등교육을 위해 '광주교육, 광주답게'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모두가 빛나는 무등교육'을 위한 3대 방향으로 ▲나다움을 찾는 행복교육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안심교육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동행교육을 제시하고 10대 핵심 과제를 공약했다.

정 전 지부장은 36년간 중등학교 평교사를 지내고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행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선옥 기자

김대중 재선 행보 속 대항마들 합종연횡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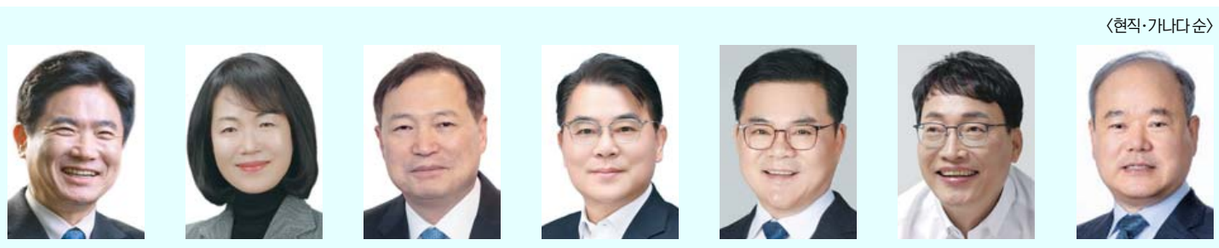
전남도교육감

金교육감 '학생수당' 전국 첫 지급

장학관·교수·전교조 지부장 등 도전

각자 미래교육 비전 제시 표밭 다져

다자구도 경쟁…단일화 파급력 촉각



전남도교육감 선거가 1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들어섰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대중 교육감에 맞서 강숙영 교육학 박사와 고두갑 목포대 교수, 김해룡 전 여수교육장, 문승태 순천대 대외협력 부총장,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 최대욱 전 한국교총 부회장 등이 도전장을 던졌다.

출마 예정자들은 전남 교육 앞에 놓인 지방소멸과 학령인구 감소를 타개할 미래 교육 비전을 제시하며 표밭을 일구고 있다. 판세 흐름에 따라 후보 간 단일화 등을 통한 합종연횡 가능성도 있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현역인 장석웅 교육감을 누르고 전남 교육의 수장이 됐다.

2024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성공적 개최와 전국 최초 학생교육수당 지급, 전남 2030 교실 등 다양한 성과를 내온 김 교육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줄곧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전국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에서 꾸준히 최상위권을 유지하면서 재선 가도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기초학력 부진과 청렴도 하락, 납품업자 주택 월세 입주 논란이 공존하고 있다.

출사표를 던진 출마 예정자들 중 유일한 여성 예비후보인 강숙영 교육학 박사는 여수 충무고 교장, 도교육청 장학관 등 30년 이상의 현장 교육 경험과 실무형 이미지를 앞세워 도전장을 냈다.

강 박사는 학력 격차 해소와 진로·진학 지원 체계 강화, 디지털 혁신 교육 전환, 인성·시민교육 확대, 교권 회복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교육기본소득'을 제안해 주목받았던 고두갑 교수는 ▲공교육 최우선 가치 '기초 문해력 강화' ▲교육 불평등 해소 '보편적 교육 복지' ▲AI시대, '질문을 던지는 자립적 지성' ▲학교 재정의 '교육 그 이상의 공간, 포용교육' ▲전 세대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지자체 협력 평생교육' 비전을 제시했다.

고 교수는 (사)기본사회 전남 상임대표와 기획재정부 전남지역경제교육센터장, 전남고용노동연구원 연구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해룡 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전남교육대전환포럼' 대표를 맡고 있으며 도내 교육계와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다.

김 전 교육장은 '학생·현장 중심, 디지털 혁신과 생태적 감수성을 겸비한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며 평등한 배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학생 중심 교육, 교육공동체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현장 중심 정책, 작은학교 디지털·생태·인권 등 미래교육 거점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전 교육장은 충덕중 교장, 순천교육지원청 여수교육지원청 장학관, 전 국가교육위원회 디지털·AI교육 특별위원을 역임했다.

문승태 부총장은 37년간 교사·교수·행정가를 두루 경험한 장점을 살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컬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순천·광양 등 동부권을 중심으로 지지세를 결집하고 있다.

문 부총장은 2015년 교육부 재직 당시 진로체험지원단 구성과 진로체험 인증제 도입 등 우리나라 진로교육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장과 한국진로교육학회 회장, 순천대 기획처장 등을 역임했다.

출마 예정자 가운데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화한 장관호 전 지부장은 25년간 교직생활을 해오다 지난해 2월 오룡중 교사로 명예퇴직하고 교육감 선거에 뛰어들었다.

장 전 지부장은 교육격차 해소·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 기본이 강한 전남 미래교육 구축, 지역·학교 동반성장, 교육 참여 주권시대 개막, 교육청 혁신 등 5대 혁신 비전을 내놓았다.

장 전 지부장은 전교조 정책실장을 지냈으며 전남교육연구소 이사장, 전남교육회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최대욱 전 부회장은 학생 인권과 교원들의 교권이 조화를 이뤄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상호 존중과 존경의 마음으로 행복하게 공부하는 에듀토피아(Edutopia) 전남교육 건설'을 제시하며 존재감 부각에 주력하고 있다.

최 전 부회장은 구례중·순천이수중·거문중 교장과 한국교총 부회장, 전남교총 정책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선옥 기자